	공 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공 일 : 2017.08.04. ○대전협회장 : 기 동 훈 ○선관위원장 : 이 현 종 ○담 당 자 : 이 혜 림 ○문 의 : 02)796-6127/6128 (YOUNGMD.ORG)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1기 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공고

2017. 8. 4.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1기 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성명	출생년도	소속
이경표	1973년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R3
안치현	1988년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R3

※ 등록 순이며, 기호 추첨은 8월 5일(토) 예정.

※ 별첨자료 : 각 후보별 프로필 및 출마의 변

2017년 8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별첨자료 1. 이경표 후보 프로필 및 출마의 변



<학력>

1979 ~ 1985년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1985 ~ 1988년 제천 동중학교 졸업
1988 ~ 1991년 제천 고등학교 졸업
1992 ~ 199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의학사)
2002 ~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정치학사, 석사)

<경력>

1998년 의사면허취득
1998 ~ 2001년 공중보건의사 (충북 단양군)
2000년 대한공중보건의사의약분업비상대책준비위원회 위원장
2001년 공중보건의사제도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
2006 ~ 2007년 서울대병원 인턴 부대표
2010년 미국 의사수련면허 취득
20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의대 내과 연수
2015년 ~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

<출마의 변>

존경하는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과의 동고동락을 꿈꾸며 21기 대전협 회장에 출마한 이경표입니다.

요즘 나라가 위기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1년 가까이 지속된 국내적 위기가 마침내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북한 발 미사일 사태로 한반도 전체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수련으로 하루하루가 이미 전쟁인 전공의들에게 이 같은 병원 밖 빅뉴스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도 같은 입장에서 십분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전공의법 제정에 따른 당장의 수련환경 변화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전공의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우리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수련 환경의 개선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전공의 지위 향상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전공의법의 본격 시행은 당초 취지대로만 시행된다면 전공의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기까지 수고한 선배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법이 당초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우리 내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꼭 우리만의 문제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참여가 결여된 대의”가 대전협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늘 1만 6천 전공의라고 호칭하지만 우리 협회에서 단위 전공의협의회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채 만 명이 되지 않고, 회비를 내는 진성 회원은 물론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협회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낮은 투표율과 단독 입후보의 고착입니다. 실제로 지난 선거들의 투표율은 30%대 수준이었고 10년 가까이 독자 후보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회원들이 얼마나 협회에 무관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당선된 집행부도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간과하고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에 매몰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즉, 협회와 회원들의 이러한 상호 무관심을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협회가 현재의 대의적 협의회에서 참여적 협회로 전환되기를 희망합니다. 분명 단위 전공의협의회 중심의 대의적 협의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효과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회의 정관을 차근히 읽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협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대전협에 정작 전공의 회원은 없고 단위전공의협의회 회원만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협의회는 노사정협의회처럼 마찰을 내포하는 이질적인 집단들 간의 모임에 더 적당해 보이고, 회원들의 단체는 협회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컨대 의사들의 단체를 대한의사협의회라고 하면 왠지 이상한 것처럼 민초 전공의 회원들의 단체라면 대한전공의협회라는 이름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의 이번 출마의 포부이자 명분은 “약자의 보호”입니다. 제가 직접 전공의가 되어 보니 의료계에서 전공의가 진정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위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 단계에 최하층 의사로서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사 사회의 미래임에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전공의 사회 내부에도 이러한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년차와 저년차 혹은 전공의와 수련의의 관계 속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갑질논란과 유사한 관행이 남아 있는 수련 환경이 우리 주변에 아직 있습니다.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외적인 수련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내적인 전공의 문화운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의사 사회의 약자인 전공의들을 대변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수련의들과 저년차 전공의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전협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견을 인정해야만 토론이 가능한데, 저의 정치관도 분명 많은 분들과 다릅니다. 저는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의사 권위도 환자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의권은 파업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환자 섬김으로 우러나는 것이고,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도 환심(患心)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위 소의, 중의, 대의를 구분하며 환자 옆을 묵묵히 지키는 것보다 국가의 거사를 다루는 것을 더 큰 의사처럼 비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바로 국민이고, 환자를 진정 내 몸처럼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는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훌륭한 정치가와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 의료는 따로 진료단을 꾸려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1만 6천 전공의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전국 방방곡곡의 진료 현장에서 지금 당장부터 실현 가능한 것이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보다 환자를 앞서 배려하는 이타심이 늘어갈수록 우리는 환심을 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정치력도 저절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은 거창한 담론을 언급하였지만, 우리는 전공의이고, 지금은 전공의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전공의다운 것이 가장 어색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피교육자

로서의 배움과 근로자로서의 노동을 함께 해야 하는 얄궂은 운명을 가진 우리 전공의들이 이중적 신분의 한계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정치인의 모토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에게 고된 전공의 기간을 덜 힘들고 알차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이던 수련이든 결국 지나가기 마련인데, 부디 4~5년의 짧지 않은 기간이 회원 개개인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미력이나마 저의 짧은 경험과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4일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후보자 이경표 드림

#별첨자료 2. 안치현 후보 프로필 및 출마의 변



1988 인천 출생
2007 청주 세광고 졸업
20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2011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 의장
(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회장직)
201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15 서울대학교병원 인턴수료
2016 대한전공의협의회 여성교육수련이사

<출마의 변>

존경하는 전공의 동료 여러분께

전공의법과 함께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 기구가 생겼고, 이 기구를 통해 전공의법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시간의 상한과 함께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허위 당직표, 표준화된 수련프로그램의 부재, 국가의 지원 없는 전공의 육성 정책은 물론이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성폭력, 착취는 여전히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남아있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은 가장 권리를 많이 빼앗긴 사람입니다. 바쁘다는 말로 모자라는, 살인적인 환경에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행위는 나와는 관계없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내어준 여러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하면서도 전공의 한사람 한사람과는 먼 바로 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의 회장선거마다, 매번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변화를 얻기 위한 길은 보다 넓고 단단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감사하게도 대표로서 활동할 기회와 지금의 전공의 수련환경의 변화와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한 과의 대표, 한 학교의 대표, 한 나라의 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예비의사들이 진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공의협의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세상을 바꾸는 과정 역시 함께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힘주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민국의 전공의는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고, 의료계를 괴롭혀온 수많은 비뚤어진 환경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다를 것이지만,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매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비뇨기과 안치현 올림